

지역 소식통

부안군, 고흥사랑기부사업 제1호 '비호텔' 설치 완료

부안군은 지난 10월 31일 고흥 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사업인 '야생벌 봉봉이를 지켜주세요!' 사업으로 제1호 비호텔을 국립 새만금간척박물관 내 공인 부지에 설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호텔 설치에 야생벌 서식지 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고흥사랑기부제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ESG 행정의 모범 사례가 되었다.

부안군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야생벌의 서식지를 보전하고, 이들의 중요한 생태적 역할을 보호하기 위해 차별화된 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비호텔은 야생벌이 안전하게 번식하고 휴식할 수 있는 인공 서식지로 벌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추진된 제1호 비호텔 설치에 군민과 기부자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가능했다"라고 전하며 "이 사업은 환경 보전을 위한 첫 단계로 앞으로 도 지역의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식품산업협, 경기도 연구과제 공모사업 선정

(재)고창식품산업연구원(이하 연구원, 이하권 원장)은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2024년 경기도 민 참여형 노동정책 연구'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고흥용 주임 연구원이 공동연구원 자격(책임 양세훈 한신대 초빙교수)으로 경기도 ESG 추진전략과 과제 연구주제로 최종 공모 선정되어 6월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와 지원협정체결식을 진행했다.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는 경기도·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지속가능한 노동환경 조성 및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 실효성 있는 노동정책의 발굴 및 연구를 목적으로 지난 10월 15~28일 2주일 간 공모를 거쳐 선정이 진행됐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세계지질공원서 대자연의 숨결 느껴

고창군 세계지질공원에 공주대학교 지구과학교육·지질환경과학 학부생들이 방문해 대자연의 숨결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7일 고창군에 따르면 공주대 지질환경과학과 학생 35명이 지난 4~5일 정기답사로 고창 세계지질공원을 찾았다.

지질과학을 공부하는 전공자들이 한 반도 지구조 형성과정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시기의 암석을 현장에서 관찰하며 학습했다. 고창에서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지질명소는 선운산의 천마봉, 진흥굴과 병마위가 대표적이다.

변성암을 볼 수 있는 지질명소는 구시포가마섬, 명매기섬, 송계리시생대편마암, 대죽도가 대표적이며, 해안가에 가장 늦게 생성된 고창갯벌과 퀘니

고창세계지질공원서 대자연의 숨결 느껴

어도 있다.

앞서 10월31일부터 이틀간 공주대 지구과학교육 45명도 고창을 찾아 지질학 기초이론을 직접 체험·관찰했다.

고창의 대표 지질명소인 병마위와 선운산을 걸어서 탐방하고, 갯벌을 가로지르는 트랙터를 타고 대죽도의 야외 암석관찰을 진행했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세계지질공원서 대자연의 숨결 느껴

고창군 세계지질공원에 공주대학교 지구과학교육·지질환경과학 학부생들이 방문해 대자연의 숨결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7일 고창군에 따르면 공주대 지질환경과학과 학생 35명이 지난 4~5일 정기답사로 고창 세계지질공원을 찾았다.

지질과학을 공부하는 전공자들이 한 반도 지구조 형성과정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시기의 암석을 현장에서 관찰하며 학습했다. 고창에서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지질명소는 선운산의 천마봉, 진흥굴과 병마위가 대표적이다.

변성암을 볼 수 있는 지질명소는 구시포가마섬, 명매기섬, 송계리시생대편마암, 대죽도가 대표적이며, 해안가에 가장 늦게 생성된 고창갯벌과 퀘니

균형발전사업 특별상 수상

유네스코 7관왕 고창,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 결과

고창군이 아쉽게 추진한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 해'가 균형발전 특별상을 받았다.

7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강원도 춘천에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 주관으로 열린 2024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받았다.

지방시대위의 특별상은 지난해 순천만 정원복합화 이후 고창군이 2번째 수상이다. 정부지원이 없고 건물을 짓는 등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주요축제 페스티벌, 시티투어 등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만으로 승부한 고창군의 도전과 성공 스토리에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앞서 삼덕섬 고창군수는 2023년을

'세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 해'로 선포했다. 이전 광역단위(전라북도 방문의 해)나 주변 시·군·구에서는 4~5년 시차를 두고 진행됐지만 고창군에서는 첫 시도였다.

고창과 서울 등 2차례에 걸친 선포식을 시작으로 제1회 고창갯벌축제, KBS 열린음악회 유치, 유네스코 7가지 보물 등재 고창 기념행사, 한여름밤의 페스티벌 등 연중 끊임없는 축제와 각종 공모전 개최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했다.

특히, 제50주년 고창모양성세 군 직영 운영 차별화된 3無(일회용품, 바가지요금, 안전사고) 축제 추진, 군민이 기획하고 참여하는 축제로의 전환, 색다른 즐길거리 제공 등 관광객을 유치

하기 위한 노력이 이번 수상 성과로 이어졌다.

올해도 고창만이 주는 특별함을 경험하기 위해 수많은 방문객들이 지역을 찾고 있다. 얼마 전 마무리된 '제51회 고창모양성세'에서도 20만명이 넘는 방문객들이 찾아 지역에 활력을 더했다.

삼덕섬 고창군수는 "지역의 고유한 자원과 문화, 사람을 결합해 외부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자립기반을 만드는 일에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다시 찾고 싶은 풍요롭고 찬란한 고창을 만들기 위한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균형발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혁명의 도시 정읍' 미래 그리다

정읍시, 전북연구원과 정책 협력 간담회 열어

정읍시와 전북특별자치도 싱크탱크인 전북연구원은 지난 5일 정읍시청 중회의실에서 송금현 부시장과 이남호 전북연구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간담회를 열고, 시가 추진 중인 현안 사업과 신규 사업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4가지 주요 사업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논의된 사업은 △정읍 구절초 꽃축제 발전방안 △내장저수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반려동물 복합문화센터 신축 △정읍형 치유농업 클러스터 조성 등이다. 이들 사업에 대한 정책 논의를 점검하고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송금현 부시장은 "전북연구원과의



합력을 통해 시는 다양한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현안과 숙원사업 실현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은 "혁명의 도시 정읍의 역사적 위상에 걸맞은 미래를 함께 논의할 수 있어 뜻깊다"며 "전북연구원도 정읍 발전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소림피스킨병 전국 확산 우려에 방역 강화

10월 12만두분 예방백신 확보 전 소사육 개체 대상 예방 접종 100% 완료

최근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발생한 소림피스킨병(LSD)이 충북과 경북 지역까지 확산되면서 전국적 전파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읍시는 지역 내 립피스킨병 유입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시는 지난해 10월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립피스킨병 전파 차단을 위해 11만두의 소에 긴급 예방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올해 10월에도 12만두분의 예방백신을 확보해 전 소사육 개체를

대상으로 예방 접종을 100% 완료했다.

시는 백신 접종뿐만 아니라 방역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축협 공동방제단(7대), 시 축산과(3대), 농협(3대) 등 방역 차량을 총동원해 흡혈곤충 방역과 축사 소독을 철저히 시행하고, 농가에는 살충제와 기피제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립피스킨 의심 축 신고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가축방역 상황실을 운영하고, 추가 예방백신 3만두분을

확보해 접종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있다.

축산과 관계자는 "정읍은 전국에서 소사육 두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립피스킨병 발생 시 농가의 피해가 막대할 수 있다"며 "방제와 소독도 중요하지만 농가에서는 예방 백신 접종과 미접종 개체에 대한 보강 접종을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 특히 접종 유예 개체는 사유 소멸 즉시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故 김대중 대통령 사저 국가문화유산 등록 챌린지 동참

권익현 부안군수, 민주화 역사·유산의 중요성 강조

권익현 부안군수가 7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국가문화유산 등록 챌린지에 동참하며, 민주화 역사와 유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챌린지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애와 민주화 업적을 기리며, 그의 유산을 보존하고 후대에 계승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는 한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장면을 담고 있는 곳으로, 대통령 내외가 50여년간 거주하며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했던 삶과 철학이 깃든 상징적인 장소이다.

그러나 지난 7월 개인사업자에게 매각되면서 상업적 목적으로 리모델링 될 가능성이 제기되어 우려를 낳았고, 결국 김대중 재단은 사저를 재매입해 대통령기념관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사저가 위치한 서울 마포구는 원형 보존을 위해 국가유산청에 임시 국가등록문화유산 지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하며 이번 챌린지를 시작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지목을 받은 권익현 부안군수는 챌린지에 동참하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는 우리 민주화 역사에 있어 중요한



유산이자 상징이며, 한국 근현대사를 아우르는 공간"이라며 "김 전 대통령이 걸은 길과 민주주의를 향한 헌신은 국민 모두가 기억해야 할 가치가 있다. 후손들에게 이러한 역사를 물려줄 수 있도록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보존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 세계지질공원서 대자연의 숨결 느껴"

공주대 지구과학교육·지질환경과학 학부생들 현장답사

고창군 세계지질공원에 공주대학교 지구과학교육·지질환경과학 학부생들이 방문해 대자연의 숨결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7일 고창군에 따르면 공주대 지질환경과학과 학생 35명이 지난 4~5일 정기답사로 고창 세계지질공원을 찾았다.

지질과학을 공부하는 전공자들이 한 반도 지구조 형성과정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시기의 암석을 현장에서 관찰하며 학습했다. 고창에서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지질명소는 선운산의 천마봉, 진흥굴과 병마위가 대표적이다.

변성암을 볼 수 있는 지질명소는 구시포가마섬, 명매기섬, 송계리시생대편마암, 대죽도가 대표적이며, 해안가에 가장 늦게 생성된 고창갯벌과 퀘니



어도 있다.

앞서 10월31일부터 이틀간 공주대 지구과학교육 45명도 고창을 찾아 지질학 기초이론을 직접 체험·관찰했다.

고창의 대표 지질명소인 병마위와 선운산을 걸어서 탐방하고, 갯벌을 가로지르는 트랙터를 타고 대죽도의 야외 암석관찰을 진행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기업·청년의 만남 '청년 취업박람회' 개최

정읍시는 7일 곰두리스포츠펀더에서 2024 정읍시 청년 취업박람회를 개최해 지역 청년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박람회는 미취업 청년들의 일자리 진입을 돕기 위해 정읍시가 주최하고 정읍고용복지플러스센터, 청년지원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여러 기관이 힘을 모아 진행했다.

박람회에는 하림, 아진전자부품 등 10개 구인업체와 함께 도내 청년 구직자 40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 기업들은 사무직, 생산직, 제조업 등 다양한

직종에서 채용을 진행했으며, 현장에서 서류 전형과 면접이 한 번에 이뤄지는 원스톱 구인 서비스를 제공해 청년 구직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각 기업들은 이날의 면접 후 자체 심사를 거쳐 최종 채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박람회에서는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됐다. 구직자들은 직업훈련과 취업 상담을 받는 등 흥미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